

수마 할권 전남지역 피해 '눈덩이'...추가 피해 우려도



7일 오후 해남 현산면 탐동마을에서 폭우로 제방이 유실돼 주택이 위태롭게 남아있다.

해남·광양·장흥서 급류·매물로 2명 사망 이재민 471세대 771명, 주택 495동 침수 논 2만4744ha 침수·가축 21만마리 폐사

광주·전남 지역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 벼와 밭작물·과수 침수피해는 2만 4924.4ha, 가축 폐사, 양식장 피해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해남 현산 533mm를 최고로 장흥 관산 466mm, 진도읍 460.4mm, 고흥 도양 430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6일 오전 4시20분께 해남에서 하천이 범람해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같은 날 오전 6시4분께는 광양

에서 절개지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는 장흥군 한 마을 인근 농수로에서 밭작물을 살피러 나갔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민은 471세대 771명이고, 55세대 68명은 불어난 물로 마을이 침수되면서 일시 대피했다.

벼는 침수는 2만4744ha로 집계됐다. 해남 5275ha, 진도 5149ha, 고흥 4949ha, 장흥 3764ha, 영암 1384ha 등이다.

밭작물은 해남, 고흥, 강진, 화순, 영광 등에서 172.4ha가 침수됐고, 과수는 나주, 강진, 고흥 등에서 8ha가 물

에 잠겨 피해를 입었다.

축사 피해는 9개 시·군 115개 농가, 가축 폐사는 5개 시·군 13개 농가 21만마리로 집계됐다. 가축별로 한우 4마리, 닭 15만9000마리, 오리 5만1000마리다.

주택 495개 동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42곳이 파손됐다.

국도 23호선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은 도로가 파손돼 통제 후 응급복구 중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피해규모 조사와 함께 응급복구 인력 투입 등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전남경찰, '광양 산사태' 전원주택 건립 공사 연관성 집중 규명

기상 여건 감안, 이르면 내일 전문기관 합동 감식 예정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양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 매물로 80대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경위를 규명하고자 이르면 오는 9일 오전 전문기관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다만, 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감식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감식에는 경찰청 과학수사사단만이 검토 선정된 토목공학 전문 감시기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참여한다. 경찰은 우선 산사태가 난 마을 주변을 정리하고, 방수포로 덮여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사고 지점과 인

접한 전원주택 신축 공사가 산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발목 이후 더 닦기 과정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6시 4분께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 동산의 흙·석축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면서 주택 2채와 창고 3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흙·잔해 더미에 깔린 A(82·여)씨가 매몰, 9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무너진 동산 중턱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다세대 전원주택 3개동 건립 더 닦기(지경 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올해 1월 지반 평탄 작업이 마무리됐고, 착공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지난 1년간 3차례나 안전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더 닦기 공사 도



6일 오후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 마을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등을 덮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119 등이 추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 굴러 떨어진 돌덩이가 민가를 덮치자, 적극적인 행정 감독을 요구했다.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사업부지 경계에 석축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공사업체, 토목 설계업체에 사면 안전성 검토 등을 제

안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경찰은 공사장 절개지 쪽 토사·석축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아닌가 보고 관련 건설업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사 인허가 자료와 민원 접수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감식 조사를 위해선 비가 그치고 땅이 일부 말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감식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제기된 의혹을 규명,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는 법리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정박중인 여선 침수.

장마 폭우에 바지선 유실 등 여수·고흥 선박사고 잇따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장마로 인해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흥, 여수지역에서 선박 유실 및 침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46분께 고흥군 도화면 구암항 앞 해상에서 전복양식장 작업을 바지(10t·강선)가 강풍에 유실되면서 갯바위에 얽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다행히 승선원은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유실 바지의 추가 표류를 막기 위해 고박후 소유자를 찾아 인계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7분께 고흥군 점암면 여호항에 정박 중인 수상레저기구 A호(0.7t·60마력)가 침몰

한 것을 순찰 중이던 나로도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에 연락한 후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인양 했다.

또 7일 오전 8시 57분께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정박 중인 1t급 여선 B호(승선원 없음)가 침몰했다. 마을주민들이 나서 배를 항·포구 안쪽으로 이동시킨 후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장마철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사고가 늘고 있다"며 "정박 여선 소유자는 고정줄 등 선박 상태를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전남 농민단체 "폭우 피해, 정부 차원 복구·방제 서둘러야"

"긴급 대응 필요"

기록적 장맛비로 전남에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정부의 빠른 복구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6월 중순 모내기를 마친 벼는 침수 피해를 당하면 생장이 멈추고 병해충에 노출돼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며 "자칫 농작물 관리, 시설 복구가 늦어지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호우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중장비 지원이 절실하다. 유실된 농로·하천을 복구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